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민심은 오늘날 주로 여론조사로 읽는다. 그리고 정치권이 민심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였느냐는 선거 결과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DJ(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와 최근 보수 야권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1987년 치러진 13대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당시 민주 진영에서는 김영삼·김대중 양급 단일화를 요구했지만 단일화 논쟁에서 수세에 있던 김대중은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자신이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를 내세웠다. 문제의 여론조사는 친김대중 진영의 단체가 실시한 것으로 엄밀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연히 김대중에게 유리한 결과였다. DJ는 이러한 여론조사 수치를 근거로 자신이 앞서 있기에 후보를 양보할 수가 없다고 끝내 버려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다.

결국 13대 대선에서 노태우가 36.6% 역대 최저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그 뒤를 이어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1%였다. 김대중은 3위로 밀렸다. 선거 결과는 참혹했다. 단일화를 거부한 양급 중 3위를 한

국민의힘 이번엔 다를까?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기에 DJ는 자발적으로 정치 은퇴까지 선언하게 된다.

그 후 김대중은 1992년 14대 대선에서도 13대 대선의 정치적 책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그래서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전략을 바꾼다. 그 유명한 뉴 DJ 플랜이다. 이때 뉴DJ 플랜은 이미지 전략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론을 따르는 것이었다. 자신의 DJ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DJ로 스스로 바꾸어 다가간 것이다. 물론 당시 재야 세력의 반발은 컸다. 그럼에도 DJ는 여론에 대한 대전환을 시도했고, 여론을 바로 읽고 따랐기에 대통령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2017년 19대 대선으로 가 보자. 당시 보수 진영은 홍준표를 내세워 문재인과 대결했다. 그러나 결과는 문재인 41.1%, 홍준표 24.0%로 보수 진영이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다. 이때 홍준표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가짜 여론조사'라느니 하면서 '내가 이긴다'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무시했다. 그러다 보니 홍준표는 선거 기간 동안 선거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었고, 끝까지 홍준표 특유의 선거 캠페인을 이어 갔으며, 결국은 참패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비대위 체제로 생존을 위한 변신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연이어 참패했다. 그리고 올 4월과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당 지지도,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등 각종 여론 지표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왜 국민의힘 관련 각종 지표가 열세로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여론을 대하는 보수 진영의 태도 때문이다. 국민의힘이나 과거 보수당의 여론관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여론을 자신의 시각으로 읽는다는 점이다. 국민의 눈이나 심지어 지지층인 보수의 눈으로도 읽지 않는다. 두 번째는 취사선택이다. 즉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세 번째는 여론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니 여론은 아주 단순해 보인다. 그야말로 아전인수적이다. 여론이 무겁거나 두렵지도 않다. 그러니 따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맞서거나 바꾸려 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중관은 국민을 객체로 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심을 따르기보다는 가르치거나 맞서거나 때에 따라서는 조작 통제의 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순간 정치인은 갑이 되고 국민은 을이 된다. 그래서 정치인의 갑질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도 여당도 아닌 정권을 잃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런 여론관을 갖고 있으니 각종 여론 지표가 낮을 수밖에 없다.

곧 큰 선거가 다가온다. 선거는 여론을 정확히 읽고 시민이나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공약 그리고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쪽이 올 4월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의 승자가 될 것이다. 대선 3수를 한 DJ는 늦게라도 이러한 민심을 알았기에 대통령 꿈을 이루었다. 탄핵을 당하고 이어 대선·지방선거·총선에서 연이어 참패를 한 국민의힘이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이는 오로지 민심을 얼마나 제대로 읽어 내느냐에 달렸다.

종교칼럼



임형준
순천 첫보리교회 담임목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삶의 요소 중 하나가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로움이 보장되어야 참된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일상에 매여 산다. 수많은 것들이 얽힌 일상의 시선은 우리에게 점점 많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규칙의 틀을 만들어 길들인다. 일상의 규칙과 방식에 적응하고 익숙하게 되면 우리는 제법 안정감과 행복감을 얻는 듯하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들로 여전히 기승 조임을 당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유로운 삶은 멀어져 가고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며 이것이 운명이며 세상살이라고 체념하게 된다.

회 인간의 삶은 세상과 유리되어 있지 않다. 위험한 욕망들이 서로 엉켜 부글거리는 일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

성실과 인내를 요구하고 더 품위 있고 큰 가치를 강요한다.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한 투자는 속박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갈망했던 파랑새는 멀리 날아가 버린다. 그리하여 매일같이 돌처럼 무거운 책임감과 삶의 중압감을 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한다.

일상은 서로 엉켜 걸리는 것들이 많다. 가장은 늘 돈이 부족하여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며 가정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경제적 책임을 선택한다. 나이가 들면 이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한계 아래에 순응한다.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정신적인 책임감, 수치심, 걱정과 두려움을 동반한 의심, 죄책감 등 다양하다. 그로 인한 오만 가지 스트레스가 자유를 잠식하여 감옥 같은 일상으로 안내한다.

성경에서는 '자유로움'을 어떻게 정의 하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인용해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죄로 인하여 자유로운 애덴의 일상을 상실해 버리고 고통의 속박 아래 놓여 종살이 하는

일상이라고 정의 하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움'을 다시 주시려고 오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는 '자유의 회복'을 약속하신다. 가난, 질병, 책임감, 죄책감, 종교, 놀림 등 일상에 묶여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면 인간의 존귀함이 회복된다.

인간의 존귀함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자유로움'을 평생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것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유롭게 믿을 믿으면 일상의 무게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눈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자유로운 일상이 사회적 가치나 부유함, 권력이나 명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한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지배하며 속박하고 있음을 알아내게 된다. 이를 통해 집착과 탐욕이 사라지면 비로소 삶은 자유로움과 동시에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진정한 자유의 회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자유로운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숨기지 않는다. 자유로운 사람은 타인을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며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 자유는 행복을 선물하고 행복은 단순하다. 그리고 자유는 일상 속에 있다.

기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바로 알기



최진수
전남대의대 명예교수·광주시 코로나19 민간전문단 지원단장

올해가 소피 해라 호시우행(虎視牛行)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잘 들어맞는 것 같다. 아무리 코로나 유행이 줄지 않고 빨리 하라 재촉하는 사회적 압력이 심해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실전에 급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백신 개발과 테스트, 승인이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도 이하로 초저온 보관해야 한다 해서 초저온 냉동고를 갖추느라 법석을 피우는데 며칠 전 제약회사에서 영하 20도 정도의 일반 냉동고에 저장해도 된다고 정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우선 급한대로 외국의 선례를 따라 고위험군부터 접종이 시작되지만 거의 올 해에 걸쳐 장기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고 성공하게 효과를 기대하는 건 잘못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11월까지 인구의 70%에 접

중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는 이론적으로 인구의 약 절반에 면적이 생겨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나 바이러스 변이 상황, 코로나 발생 규모 등 변수가 있지만 일단 병의 위중도를 크게 완화시키고 지역사회 대유행이 억제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은 상황이 일거에 개선되지는 않는다. 가장 예방접종을 먼저 시행한 이스라엘에서 나온 최근 보고에 의하면 인구의 절반에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했을 때 3주까지는 환자 발생에 변화가 없었고 2차 접종이 끝나고 1주 후에야 발생이 3분의 1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코로나가 광범위하게 퍼져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예방접종의 효과가 그리 빨리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신 수급 차질이나 왜곡된 정보에 의한 접종 기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 목표 달성이 지연되어 집단 면역 도달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사회적 고통도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역 감염이 유행하는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발생 규모와 밀접도나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좌우되지만 지금까지는 방역당국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힘입어 대규모 지역사회 추가 확산은 어느 정도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방접종이 시작되었다 해서 바로 코로나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의 환자 발생은 다른 지역의 발생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예방접종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앞으로를 염두에 예방접종 후에 코로나 발생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가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걸렸다는 식의 선정적 보도가 나올 테지만 안심하시라. 이런 보도는 믿고 걸러도 된다.

주의할 점은 예방접종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 개인적으로도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아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방접종은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와 같은 비약물적 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와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밀접·밀집·밀폐의 소위 '3밀' 환경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접종을 받은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접종 후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해서 오히려 감염 재생산 지수가 올라갔다는 외국의 보고도 있다. 곧 4차 대유행이 다가온다는 경고가 들리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제 조금씩 터널 끝이 보인다. 백신이 희망이다. 그렇다고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社說

백신 접종 시작됐지만 경계 늦추면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 기대를 받고 있는 백신이 어제 광주·전남 지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도 도착했다. 국내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인데, 광주는 3200명분 전남은 2만1900명분이다.

안동에서 생산돼 이천 물류센터를 거친 백신 배송 작업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그 특종사 요원과 민방위복 차림의 방역 담당 공무원들이 하역부터 검사 과정은 물론 저장고에 입고될 때까지 한 시도 눈을 팔지 않고 지켜다. 그만큼 백신 원을 확인하기 힘든 확진자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오전 9시부터는 요양병원 의료진과 종사자 및 만 65세 미만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AZ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지난해 2월 4일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기점으로 보자면 388일 만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이다. AZ 백신에 이어 화이자 백신도 오늘 광주·전남에 첫 공급분이 도착할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

은 감염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으로 다음달 3일부터 조선대병원 등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시작된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만큼 코로나 사태 진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은 경계를 늦출 단계가 아니다. 광주만 하더라도 물류센터 등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감염 원인을 확인하기 힘든 확진자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방역 상황이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했다고 판단해 당초 이번 주에 공개하려 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근본 개편안 초안을 다음 주로 연기했다.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방역+3단계'로 간소화해 서민 경제의 피해를 줄이려던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게임 체인저로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집단 면역을 생길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물론 생활 속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만 한다.

오토바이 난폭운전 방지 교육·단속 병행을

광주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질주,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의 난폭 운전으로 일반 승용차 운전자나 보행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식은땀을 흘릴 때가 많다. 오토바이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

광주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62명으로 전년(49명)에 비해 26.5%나 증가했다. 사망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실제 2019년 4건에 그쳤던 오토바이 사망 사고는 2020년 17건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배달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배달 오토바이의 수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신속하게 배달하려는 서비스 경쟁으로 상당수 오토바이 운전자

들이 과속과 신호위반, 곡예운전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스피드를 즐기려는 청소년들의 위험한 질주도 사고 다발의 원인이다.

오토바이는 승용차와 달리 사고가 나면 예외 없이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치명적인 운송 수단이다. 경찰과 당국은 지금까지 실시한 단속 활동으로 사망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오토바이 사고에 접근해야 한다. 운전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뿐만 아니라 난폭·곡예운전과 헬멧 미착용 단속 등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차체에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의식 개선을 위해 배달 업체를 상대로 안전 운전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나 배달업체 운영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無等鼓

"여자 선수들은 사흘만 풀어놓아도 엉덩이에 살찌는 소리가 들리는 법이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여자배구 팀에 금메달을 안긴 다이마쓰 히로부미 감독이 했던 말이었다. "죽을힘을 다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던 그는 선수들에게 힘 들을 주지 않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문제는 훈련 과정에서 구타와 욕설은 기본이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코트에서 선수들을 두들겨 패다가 관중들에게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학폭 미투'

1978년 몬트리올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배구팀 핑을 앞두고 한국 배구팀은 이 일본 감독을 여자 대표 팀 고문으로 초빙해 선수들에게 특별훈련을 시킨 적이 있다. 하지만 혹독한 합숙 훈련에 반기를 든 선수가 팀을 이탈하고, 협회는 유망 선수를 제명하는 등 적지 않은 파동을 겪었다. 물론 구기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동) 획득이라는 성과를 얻긴 했지만, 일본에서 도입된 합숙 훈련이 초중고 학교 운동부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은 군사정권 때인 1970년대 '대학 입학 특기자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다. 이후 '성적

지상주의'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이른바 '군기'를 강요하는 요인이 됐고, 이로써 체육계는 지도자가 선수를 때리고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학교 폭력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스카우트 시스템'도 학교폭력의 한 원인이다. 선수가 프로 팀에 스카우트되면 학교에 지원금이 들어가고 지도자는 이를 기반으로 팀을 운영한다. 이 때문에 각종 대회에서의 성적을 좌우하는 팀의 에이스가 후배들을 폭행하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여자 프로배구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폭로 사건이 일파만파 전체 스포츠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체육의 성적 지상주의와 이에 따른 합숙 훈련 관행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이제 체육 특기자 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과학적 훈련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엘리트 체육에서 '클럽 체육'으로 전환하는 등 체육계 전반에 변화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스포츠계 곳곳에 남아 있는 군사문화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학폭(학교폭력)은 반드시 부패망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2-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